

수 학 보 고 서

■ 소 속 :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 성 명 : 김 우 ■ 학 번 : 20712
■ 파견연도: 2012-2 ■ 교류대학 : Hogeschool van Amsterdam/HES (교환학생)

1. 교육과정, 강사진 소개

우선 학점 인정제도가 우리나라 대학교와 다릅니다. 유럽에서는 ECTS라는 단위로 학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기준표로 변형해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5 ECTS를 취득하면 우리나라에서 3학점으로 인정되고 3ECTS는 2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식입니다.

수업은 경제, 경영, 무역관련 모든 과목이 있었고 교환학생을 위한 영어 수업 클래스도 있었습니다.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고 네덜란드 현지 학생들과 교환학생들이 함께 수강하였습니다. 교수님들도 네덜란드 분이셨는데 네덜란드 학생들이 간혹 수업시간에 네덜란드 말로 이야기를 하면 영어로 수업을 하게끔 바라잡아주는 모습을 몇 번 본적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손을 들고 발표하는 모습을 볼수 있으며 시험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 같은식으로 비슷하게 출제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토론을 시켜놓고 그 토론모습을 교수과 학생들이 평가하고 피드백함으로써 평가하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2. 과외활동 소개

ISN AMSTERDAM, Babylonix 두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ISN은 HvA 뿐만 아니라 여러학교와 연합해서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이고 Babylonix는 우리학교의 학생회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네덜란드에 도착하게되면 ISN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교환학생 환영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교우관계 소개

제가 네덜란드에 파견됐을때가 때마침 싸이 강남스타일 열풍이 불었을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꽤 있었고 그 친구들과 공통된 관심사가 생기다보니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초대에 파티도 열면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친구들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준덕분에 더 잘적응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문화적 차이

처음에 네덜란드에 갔을 때 놀랐던 부분이 숙소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기숙사는 한 방에 화장실, 거실, 주방을 공유하고 각4개의 방이 있어서 4명이 같이 사는 방식(아파트?) 이었는데 룸메이트가 여자라서 신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더치페이의 나라답게 자기 부분만 계산하는 부분도 신기했습니다.

5. 프로그램을 마치고 하고 싶은 말

영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했는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좋은 추억 쌓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6.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네덜란드의 장점은 여행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유럽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유럽의 타지역보다 쉽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가 항공사가 굉장히 잘되어서 비교적 싼(?)가격에 유

럽 여행을 다닐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을 간다고 해서 항상 즐거운 날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을수 있
고 생각합니다.